

하악전치부의 마모와 부분무치악을 가진 환자의 완전 구강회복 증례

엄정희*, 박주미, 안승근, 송광엽, 박찬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오랜 기간 무치악 상태를 유지하여 대합치가 정출하여 교합평면의 조화가 무너진 경우 치열과 교합관계의 조화가 무너지고 저작운동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교합의 회복과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작계의 모든 요소들과 조화되게 교합평면을 설정하고 교합관계를 개선하여 심미적,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56세의 여자환자로 하악전치부 치아의 마모와 하악 우측 구치부의 상실에 의한 저작 장애로 내원하였다. 상악전치부의 PFM에 대합되는 하악전치부의 마모와 하악 중절치 사이의 spacing이 관찰되었고 5년전에 RPD를 제작했으나, 사용하지 않아 하악 우측 구치부의 무치악 공간으로의 상악 대합치의 심한 정출을 보이고 있었다. 환자는 하악전치부의 spacing의 심미적인 회복과 무치악부위의 수복을 원하였다.

수직 약간 관계에 대한 검사 후 교합기 상에서 incisal guide pin을 4mm 높여, 수직고경은 안정공극내의 소구치부에서 약 1.5mm 정도 거상하여 진단 wax-up을 시행하였고, provisional restoration을 3개월 동안 장착후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기능적으로 적응함을 관찰하였다. 이에 전방유도는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 후 얻어진 안정화된 상태에서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이용하여 최종보철물에 재현하게 하였다.

각 치아는 상악전치부의 6 unit bridge와 하악 우측 견치와 제 1소구치의 2 unit bridge를 제외하고는 모두 single unit로 제작하였다.

무치악 부위는 rigid attachment인 mini SG를 사용하여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RPD를 제작하였다.